

##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공감 능력의 매개적 역할\*

The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on Social Competence of School-Aged Children :  
The Mediating Role of Empathy\*

김정은(Jung-Eun Kim)<sup>1)</sup>

도현심(Hyun-Sim Doh)<sup>2)</sup>

김민정(Min-Jung Kim)<sup>3)</sup>

김재희(Jae-Hee Kim)<sup>4)</sup>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empathy on social competence were examined with a sample of 403 fifth and sixth graders (192 males, 211 female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Gyoung-gi province. All research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nducted by the children concern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attachment had no direct effect, but there was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ediated by children's empathy. Maternal attachment influenc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latively more than paternal attachment. As compared to parental attachment, however, children's empathy was the more influential variable when it came to social competence.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in both gen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children's own characteristics such as empathy te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compared to the

\* 이 논문은 2011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sup>4)</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parental role in middle childhood. Accordingly,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children's empathy need to be emphasized in order to develop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gardless of gender.

**Key Words** : 부모에 대한 애착(parental attachment), 공감(empathy),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 I. 서 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능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아동의 현재 생활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심각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보호요인(Garmezy, 1991)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학령기는 사회적 능력 발달의 민감기로(Katz & McClellan, 1997), 이 시기에 획득한 사회적 능력은 건강한 자아와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Woo, 2007)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사회적 능력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거나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고,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부적응의 위험을 지니게 된다(Crick, 1996). 특히 국내의 성취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게 되고(Kim, 2011; Lee, Doh, Choi, & Ku, 2010), 이에 따라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가중시키게 된다(Kang, 2007).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사회적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었고, 사회성이나 인기도 등의 측면이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한 선행 변인으로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언어통제 유형, 부모-자녀관계의 질, 가정환경, 사회계층(Doh, 1994; Lee, 2003; Macdonald & Parke, 1984; Ro, 2003; Shin, 2002; Yoon, 2002),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Lim, 1996)와 같은 외적·환경적 요인이나 성별, 기질, 정서, 공감, 신체적 외모 등 아동의 내적·개인적 특성 등을 포함한 연구들(Hong, 2005; Jeon, 2009; Kwon, 2003; Lee, 2011; Walker, Berthelesen, & Irving, 2001)이 수행되어 왔다. 아동은 양육자를 통해 형성된 애착을 기반으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Bowlby, 1973), 이 중에서도 사회적 능력의 예측요인으로서 애착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Macdonald & Parke, 1984; Shin, 2002). 안정적 애착을 가진 아동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며, 공감적이고, 호혜적 친구관계를 맺으며(Kwak, 2011; Mo, 2011; Shin, 2002; Sroufe, 1983), 또래들 간에 인기가 있고,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또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도력을 보이고 더 유능한 반면, 불안정하고 과민한 성향이 낮았다(Lee & Kim, 1996; Park & Choi, 2002).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의 경험을 더 잘 활용하고, 타인을 덜 무시하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Lee, 2003). 이처럼 주요 애착 대상과 형성한 강한 유대 관계는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Ainsworth, 1969; Bowlby, 1973)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하, 모 애착)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동발달에 있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하, 부 애착)의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주된 애착 대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Bowlby, 1958), 아동은 부모 중 어떤 대상이든지 분리되었을 때 고통을 느꼈으며(Field, Gewirtz, Cohen, Garcia, Greenberg, & Collins, 1984), 부모 모두에게 직접적 애착행동을 보였다(Brown, McBride, Shin, & Bost, 2007; Lamb & Tamis-Lemonda, 2004). 또한 부-자녀관계는 모-자녀관계와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Grossmann, Grossmann, Fremmer-Bmbik, Kindler, Scheuerer-Englisch, & Zimmerman, 2002; Lee & Choi, 2007), 아버지는 주된 양육자는 아닐지라도 아동에게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Grossmann, Grossmann, & Zimmermann, 1999). 부 애착은 아동의 우호적-협동적 행동, 불안·회피행동, 또래와의 행동,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질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Booth-LaForce, Oh, Kim, Rubin, Rose-Krasnor, & Burgess, 2006), 인기가 많은 아동의 경우 부 애착 점수가 높았다(Verschueren & Marcoen, 2002). 이처럼 부 애착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 애착과 모 애착 모두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편, 선행 연구들에 근거할 때 부 애착 및 모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제 3의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가운데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감 능력(Hong, 2005)은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점차 부각되는 변인이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횡·종단적 연구에서 Zhou와 동료들(2002)은 아동의 공감 능력은 부모의 애착 안정성의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부모의 온정성 및 반응성과 같은 긍정적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Cho, & Hong, 2005)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상호 친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청소년의 공감 능력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기도 하였다(Cha, Doh, & Choi, 2010). 이와 같이 부모 변인으로서 양육행동을 고려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 학령기 아동의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공감 능력 간의 관계는 유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이후에 공감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Mussen과 Eisenberg(1977)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모에 대해 형성한 안정 애착은 유아 스스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므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owlby, 1958; Cohn, 1990). 경험적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은 아동의 현재 그리고 이후의 공감 능력 발달을 예측하였다(Kestenbaum, Farber, & Sroufe, 1989). 양자 간의 관계는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보고되는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정서지능이 높을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였으며(Wang & Kim, 2004; You, 2003),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Kim, 2004).

그러나 애착과 공감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들이 모두 유사한 방향성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애착과 만 2세 걸음마기 유아의 공감 능력 간의 관계는 미약하였으며(Van der Mark,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02), 성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공감 능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Lee, Kim, & Seo, 2006). 이는 애착과 공감 능력이라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애착과 공감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또한 영유아의 공감 능력을 부모보고에 의해 측정함으로써(Lee & Kwak, 2010) 보고자의 편견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실험을 통해 측정함으로써(Van

der Mark *et al.*, 2002) 일상적인 공감반응을 평가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론적 한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 특성상 자기 보고가 가능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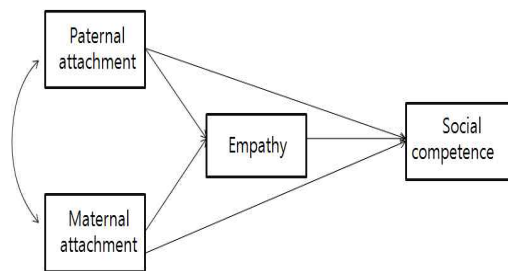
아동의 공감 능력이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연구변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회적 능력과 관련시켜 살펴본 국내연구는 매우 드물다. 아동의 공감 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한편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 능력은 초등학교의 문제행동 감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감 능력의 향상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과 과잉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Park, 2001). 이처럼 양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공감 능력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해서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Hong, 2005)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련성을 밝혀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국외의 몇몇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은 공감 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이타행동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Batson, 1987; Eisenberg & Miller, 1987),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였다(Miller & Eisenberg, 1988). 이와 같이 공감 능력은 부모에 대한 애착의 발달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예측된다. 학령기 아동의 공감 능력은 부모와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애착관계 속에서 발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에 기초할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공감 능력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두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나 어느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공감 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공감 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과 모 애착, 아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연구문제 1> 부 애착과 모 애착, 아동의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능력 간의 경로는 어떠한가?
- 1-1. 부 애착과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1-2. 부 애착과 모 애착은 아동의 공감 능력을 매개로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Linking p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attachment to social competence through empathy in middle childhood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3곳 초등학교 15개 학급의 5, 6학년에 재학 중인 403명의 남녀 아동들이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Hartup, 1989)이며, 특히 이 시기의 사회적 능력은 훗날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Katz & McClellan, 1997)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비해 자신에 대해 보다 적절하게 평가할 뿐 아니라, 설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7.6%(192명), 여아가 52.4%(211명)이고, 평균 연령은 12.5세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6.8%(229명), 둘째가 39.7%(160명), 셋째 이상이 3.2%(13명)이었으며,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9.1%(359명), 대가족이 10.9%(44명)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4세가 58.4%(222명), 45-49세가 32.4%(123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44세가 66.2%(254명), 40세 미만이 24.7%(95명)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87.6%(29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으로 15.6%(63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69.5%(28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12.2%(49명)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63.8%(257명), 전문직 및 고위 관리직이 8.2%(33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7.4%(30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59.6%(240명),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17.1%(69명)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공감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아동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1) 부모 애착 척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번안·수정한 옥정(1998)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부 애착과 모 애착 각각 의사소통(9문항), 신뢰(10문항), 소외(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준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등으로, 신뢰의 경우 ‘아버지(어머니)는 내 판단을 신뢰하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등으로, 그리고 소외의 경우, ‘나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 빠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 애착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 애착 척

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의사소통 .83, 신뢰 .87, 소외 .75이었고, 모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의사소통 .80, 신뢰 .80, 소외 .67이었다.

### 2) 공감 능력 척도

아동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 검사(Interpersonal Reaction Index)와 Bryant(1982)의 아동/청소년 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를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Park(1997)의 공감 능력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인지적 공감 능력(10문항)과 정서적 공감 능력(20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인지적 공감 능력의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본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려고 노력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공감 능력의 경우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 싶다.’, ‘상처를 입은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은 각각 .79와 .82이었다.

### 3) 사회적 능력 척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Doh & Falbo(1999)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사회적 능력 척도(The Three Scales of Social Competence)를 연구자가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성(Sociability)(4문항), 인기도(Popularity)(8 문항), 제멋대로 하기(Brattiness)(4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사회성의 경우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 한다.’, ‘친구들을 좋아 한다.’ 등을, 인기도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등을 들 수 있다. 제멋대로 하기는 ‘친구들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을 낼 때가 많다.’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사회성 .86, 인기도 .84, 제멋대로 하기는 .80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경기도 Y시에 위치한 3곳 초등학교 15개 학급 5, 6학년을 선정하여 학교장의 동의하에 2011년 7월에 실시되었다. 질문지 배부 전 각 담임교사들에게 질문지 배부 및 작성 방법과 응답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후 담임교사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배부·작성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1-2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배부된 450부 가운데 425부가 회수되었으며(94%의 회수율), 한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9부)와 불성실한 응답(13부)을 제외하고, 총 403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1.654-4.275)와 0.1 이상(0.239-0.605)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분석하였고,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hi^2$ 와 함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chi^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내용이 쉽게 기각되며 표집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RMSEA는 보통 .05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GFI, TLI, CFI와 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 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Hong, 2000).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Kim, 2007)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성에 따라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부 애착과 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및 소외, 공감 능력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능력과 인지적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인기도, 제멋대로 하기 등 측정변인들 간에는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 2. 측정모형의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요인부하량( $\beta$ )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이에 해당하였으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제멋대로 하기’는 .011의 수치를 보여 삭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 = 117.539(df = 29)$ ,  $\chi^2/df = 4.05$ , GFI = .947, CFI = .955, NFI = .941 TLI = .930, RMSEA = .08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합도 지수들이  $\chi^2/df < 3$  (Kline, 1998), CFI > .90, NFI > .90, TLI > .90(March & Hau, 1996), RMSEA < .08 (Browne & Cudeck, 1993)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가 적어도 5이상, 보수적인 경우

<Table 1> Correlations among paternal attachment, maternal attachment, children's empathy and social competence (N = 403)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u>Paternal attachment</u>											
1. Communication	-										
2. Trust	.85**	-									
3. Alienation	-.62**	-.63**	-								
<u>Maternal attachment</u>											
4. Communication	.54**	.49**	-.35**	-							
5. Trust	.49**	.54**	-.31**	.78**	-						
6. Alienation	-.39**	-.39**	.50**	-.62**	-.61**	-					
<u>Empathy</u>											
7. Cognitive empathy	.35**	.32**	-.18**	.40**	.33**	-.22**	-				
8. Emotional empathy	.28**	.29**	-.15**	.40**	.33**	.21**	.60**	-			
<u>Social competence</u>											
9. Sociability	.21**	.20**	-.13**	.27**	.23**	.11*	.24**	.22**	-		
10. Popularity	.30**	.27**	-.13**	.33**	.25**	.18**	.33**	.26**	.50**	-	
11. Brattiness	.08	.07	.09	.12*	.15**	.15**	.16**	.09	.08	.04	-
<i>M</i>	2.99	3.31	1.83	3.18	3.44	1.78	2.72	2.73	2.60	2.68	
<i>SD</i>	.59	.49	.55	.50	.49	.51	.45	.36	.53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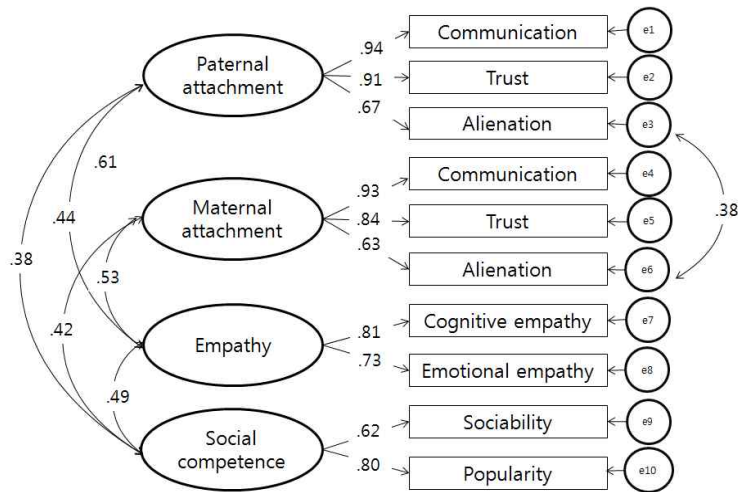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Table 2> Factor loadings for the measurement model (N = 403)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B	$\beta$	SE	t	p
Paternal attachment	Communication	1	.936			
	Trust	.800***	.905	.031	25.710	***
	Alienation	.512***	.670	.031	16.438	***
Maternal attachment	Communication	1	.930			
	Trust	.877***	.842	.042	20.690	***
	Alienation	.521***	.629	.036	14.363	***
Empathy	Cognitive empathy	1	.808			
	Emotional empathy	.734***	.734	.074	9.878	***
Social competence	Sociability	1	.617			
	Popularity	1.408***	.801	.206	6.822	***

\*\*\*p < .001.



<Figure 2> Factor loadings for the measurement model

<Table 3> Fit index for the measurement model (N = 403)

Variables	$\chi^2$	GFI	RMSEA	CFI	TLI	NFI
Index	61.346	.971	.054	.983	.973	.969

는 10이상인 경우 공분산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Kim, 2007)를 바탕으로 부 애착-소외(e3)와 모 애착-소외(e6) 공분산을 연결

해 모형을 수정하였다(Table 2, Figure 2). 그 결과,  $\chi^2 = 61.346(df = 28)$ ,  $\chi^2/df = 2.19$ , GFI = .971, CFI = .983, TLI = .973, NFI = .969,

RMSEA = .054로서 그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적합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부 애착과 모 애착, 공감 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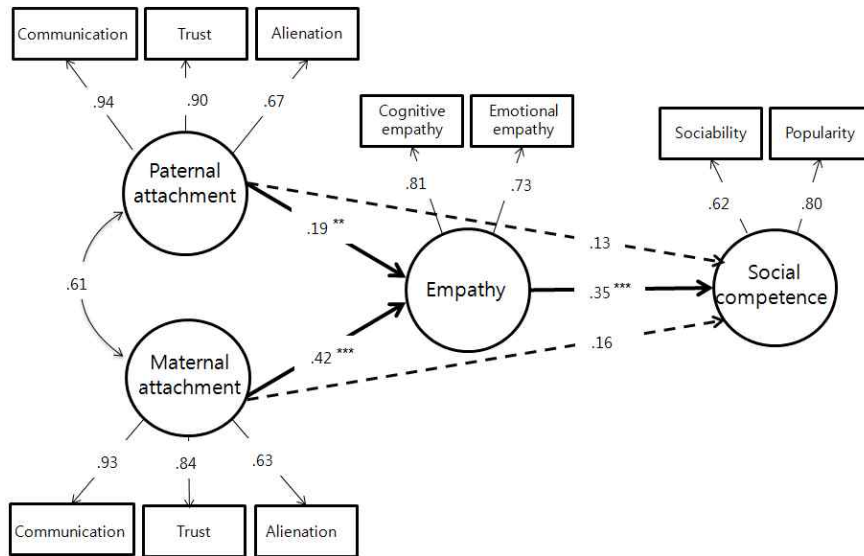
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61.346(df = 28)$ ,  $\chi^2/df = 2.19$ , GFI = .971, CFI = .983, TLI = .973, NFI = .969, RMSEA = .054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첫째, 부 애착( $\beta = .131, p > .05$ )과 모

<Table 4>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403)

Path of Latent Variables	B	$\beta$	SE	t	p
Paternal attachment → Empathy	.122	.185	.046	2.63**	.009
Maternal attachment → Empathy	.622	.418	.114	5.44***	***
Empathy → Social competence	.309	.345	.082	3.77***	***
Paternal attachment → Social competence	.077	.131	.045	1.70	.088
Maternal attachment → Social competence	.214	.160	.114	1.87	.061

\*\* $p < .01$ . \*\*\* $p < .001$ .



Note 1. Measurement errors are deleted.

Note 2. Solid and perforated lines represent significant and insignificant paths, respectively.

\*\* $p < .01$ . \*\*\* $p < .001$ .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redicting social competence from paternal attachment, maternal attachment, and empathy (N = 403)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R <sup>2</sup>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ternal attachment → Empathy	.185**	-	.185**	.30
Maternal attachment → Empathy	.418***	-	.418***	
Empathy → Social competence	.345***	-	.345***	.29
Paternal attachment → Social competence	.131	.064*	.195***	
Maternal attachment → Social competence	.160	.144**	.304***	

\* $p < .05$ . \*\* $p < .01$ . \*\*\* $p < .001$ .

애착( $\beta = .160, p > .05$ )은 모두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부 애착이 공감 능력을 통해 사회적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부 애착은 공감 능력에( $\beta = .185, p < .01$ ), 공감 능력은 사회적 능력( $\beta = .345,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 애착은 공감 능력에( $\beta = .418, p < .001$ ), 공감 능력은 사회적 능력( $\beta = .345,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 애착과 모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감 능력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그려보면 <Figure 3>과 같다.

부 애착 및 모 애착과 공감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Table 5),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 능력( $\beta = .35, p < .001$ )이었으며, 모 애착( $\beta = .30, p < .001$ )과 부 애착( $\beta = .20, p < .001$ )이 뒤를 이었다. 부 애착 및 모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sup>1)</sup>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즉, 부 애착은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beta = .13, p > .05$ ), 공감 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 = .06, p < .05$ ). 모 애착 역시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beta = .16, p > .05$ ), 공감 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 = .14, p < .01$ ).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아동의 공감 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0%이었고, 부 애착 및 모 애착과 공감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분산의 29%를 설명하였다.

#### 4. 연구모형에서의 교차타당성 검증

부 애착 및 모 애착과 공감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구조모형 과정에서 연구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교차타당성 과정이

1) Amos 프로그램에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Bootstrapping은 추정치를 k번 반복 추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소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 추정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계산이 가능)과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Kim, 2007).

&lt;Table 6&gt; Multiple group analysis (N = 403)

Model	NPAR	$\chi^2$	df	GFI	RMSEA	CFI	TLI	NFI
A	54	118.196	56	.949	.053	.968	.949	.942
B	48	123.983	62	.947	.050	.968	.954	.939
C	40	136.505	70	.941	.049	.966	.956	.933

$$A : B \quad \chi^2_B - \chi^2_A = 5.787 \quad df_B - df_A = 6 \quad p = .447 > .05$$

$$A : C \quad \chi^2_C - \chi^2_A = 18.309 \quad df_C - df_A = 14 \quad p = .193 > .05$$

Note. A = Unconstrained Model

B = Constrained Model : Measurement Weights

C = Constrained Model : Structural Weights

요구된다. 교차타당성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본에서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집단에서 분석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Kim, 2007).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교차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은 측정제약모형 및 구조제약모형과 유의확률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아와 여아가 서로 동일한 모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 A)과 남녀 아동 간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제약모형(Measurement Weights : B)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Delta\chi^2 = 5.787(123.983-118.196)$ ,  $\Delta df = 6(62-56)$ ,  $p = .44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의 제약뿐 아니라 비제약모형과 구조제약모형(Structural Weights : C) 간의 비교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 = 18.309(136.505-118.196)$ ,  $\Delta df = (70-56)$ ,  $p = .193$ ). 이에 집단 간 교차 타당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여 본 모형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 및 공감 능력과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공감 능력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아동의 공감 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 부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학령후기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Erikson, 1963), 부모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차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Shanahan, McHale, Osgood, & Crouter, 2007). 그들은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학교, 학원, 인터넷 등을 통해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래의 영향력은 증가한다(Berndt, & Murphy, 2002; Harris, 200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학령후기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또래나 주변 환경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분석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라는 두 변인 간의 개별적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긍정적인 유대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아동일수록 높은 사회성과 인기도를 갖는 등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연구결과들(Lee, 2003; Lee & Kim, 1996; Sroufe, 1983; Yoon, 2002)과 일치한다. 즉, 학령기 아동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의 공감 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개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제 3의 변인과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공감 능력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 애착과 모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공감 능력이 높았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높은 사회성이나 인기도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스로 정서조절을 잘하게 되고, 이것은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갖게 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Panfile & Laible, 2012)와 유사하다. 또한, 안정적인 부모 애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부모의 온정성은 부모로 하여금 긍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고, 이는 아동의 공감적 반응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Zhou *et al.*, 2002)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 외에도,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심리적으로 상호 친밀한 성장환경에서는 공감 능력이 발달되어 사회적 능력이 증가되고(Kim *et al.*,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이 발달하여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ha *et al.*, 2010)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현재 및 이후에 나타나는 공감적 반응을 예측하며(Kestenbaum *et al.*, 1989),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특히 생의 초기부터 형성되는 부모와의 애착은 공감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연구결과(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와 유사하다. 또한, 모-자간 애착이나 정서적 상호작용이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Zahn-Waxler & Radke-Yarrow, 1990)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학령기가 정서지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Golman, 1995)에서, 아동에게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초기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아동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총효과는 모 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형성과 상호작용이 아버지보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Lee & Choi, 2007; Main, Kaplan, & Cassidy,

1985; Suess, Grossmann, & Sroufe, 1992)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애착 역시 아동의 공감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Marrisa, Russell, & Melissa, 2007)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주된 양육자가 아님에도 아버지를 애착대상으로 여기며(Ahn, 2002; Grossmann *et al.*, 1999), 부모 모두에게 직접적 애착행동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들(Brown *et al.*, 2007; Lamb, 1977; Lamb & Tamis-LeMonda, 2004)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애착 모두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부모 공동양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령기 아동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감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의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보여준 연구결과들(Hong, 2005; Jeon, 2009)과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감정이입이나 조망수용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고(Hong, 1987; Krevans & Gibbs, 1996), 공감 능력의 향상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공격행동, 과잉행동과 문제행동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Eisenberg, Eggum, & Giubta, 2010; Kim, 2002; Park, 2001; Park & Kim, 2001)과도 유사하다. 이 외에도 공감 능력은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또래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서기제임을 밝힌 연구결과들(Eisenberg & Miller, 1987; Howard & Barnett, 1981; Moon, 2004)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이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 특히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서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최적의 발달시기인 학령기에 아동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는 아동 교육과정이나 부모교육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능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경로에서 부모 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아동의 공감 능력이 매개변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학령기라는 발달 단계가 점차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줄어들고 또래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는 점(Harris, 2000)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학령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환경과 대상이 가정에서 학교환경으로, 부모에서 또래로 변화된 맥락 안에서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 아동이 효과적인 사회적인 기술을 터득하고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사회화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점차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기분을 적절히 표현하는 등 정서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숙도를 정서지능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서지능은 학령기 아동이 긍정적으로 사회화되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개인적인 능력이다(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기능을 구성하는 요소인 공감 능력은 아동의 부 애착 및 모 애착에 비해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발달하는데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구모형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이는 자녀가 유능한 사회 구성

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부모는 아동의 성에 구별 없이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감 능력의 점수가 높으면 남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고 위험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Eisenberg, Fabes, Schaller, Miller, Carlo, Poulin, Shea, & Shell, 1991)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공감 능력이라는 정서는 대부분 여성에게 더 강조되고 있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역할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ashima, Yamaguchi, Kim, Choi, Gelfand, & Yuki, 1995; Strauss, 2004).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소홀히 하기 쉽고, 혹시 남아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문제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인의 성차는 발견될 수 있으나,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통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유능한 사회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녀 아동 모두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을 갖고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학령기 아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은 부모 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아동이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사회적인 능력을 갖춘 독립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이 중요한 점이 강조됨에 따라 공감 능력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발달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 아동의 공감 및 사회적 능력 등 모든 연구변인들을 아동 보고에 의해서만 조사하였다. 이런 경우,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축소 또는 과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나 교사, 부모 등 다양한 보고자를 통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과 아동의 공감,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성과 인기도의 두 가지 하위 영역만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발달단계나 사회문화적 맥락 및 규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념과 구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 애착이라는 부모-자녀관계 요인과 아동의 공감 능력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모-자녀관계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아동 개인이 가진 내적 자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학령기 아동의 경우 사회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동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긍정적인 아동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공동양육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부 애착도 모 애착과 마찬가지로 아

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의 상호작용 및 개입이 줄어들어 학령기 시기에 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공감이라는 정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강조되어 왔으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중요한 정서 지능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hn, M. J. (2002). A comparison between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4), 969-102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tson, C. D. (1987). Prosocial motivation : Is it ever truly altruistic?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New York : Academic Press.
- Berndt, T. J., & Murphy, L. M. (2002). Influences of friends and friendship : Myths, truth, and research recommendation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0*, 275-310.
- Booth-LaForce, C., Oh, W., Kim, A. H., Rubin, K. H., Rose-Krasnor, L., & Burgess, K. (2006). Attachment, self-worth, and peer-group functioning in middle childhood.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8*(4), 309-325.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5),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rown, G. L., McBride, B. A., Shin, N., & Bost, K. K. (2007). Parenting predictors of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ing quality. *Fathering* [online]. Retrieved May 5, 2009, from <http://www.highbeam.com/Fathering/publications.aspx/date=20070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Beverly Hills, CA : Sage.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 Cha, S. H., Doh, H. S., & Choi, M. K. (2010). The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25-137.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1), 152-16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oh, H. S., & Falbo,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Doh, H. S. (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ener and sixth grades :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isenberg, N., Fabes, R. A., Schaller, M., Miller, P. A., Carlo, G., Poulin, R., Shea, C., & Shell, R. (1991).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correlates of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59-470.
- Eisenberg, N., Eggum, N. D., & Giubta, K. D. (2010). Empathy-related responding : Associ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aggression, and intergroup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4(1), 143-18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Field, T., Gewirtz, J. L., Cohen, D., Garcia, R., Greenberg, R., & Collins, K. (1984). Leave-taking and reunions of infants toddlers,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Child Development*, 55(2), 628-635.
- Garmenez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3), 416-43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Grossmann, K. E., Grossmann, K., & Zimmermann, P. (1999). A wider view of attachment and exploration : Stability and change during the years of immaturity.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760-783). New York : Guilford Press.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e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7-331.
- Harris, J. H. (2000). Socializ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child's environment : Comment on Vandell. *Developmental Psycho-*

- logy*, 36(6), 711-723.
- Hartup, W. H.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The American Psychology*, 44(2), 120-126.
- Hong, H. J. (1987). A study on the children's development of empath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K. M. (2005).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level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ward J. A., & Barnett, M. A. (1981). Arousal of empathy and subsequent generosity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8(2), 307-318.
- Jeon, E. J. (2009). Relationships among empathy,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E. K. (2007). Wangta as a group process : Relation between wangta participant ro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aggressive behavior, social competence and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25-937.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estenbaum, R., Farber, E. A., & Sroufe, L. A.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among preschoolers;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In N. Eisenberg(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No. 44. Empathy and related emotional responses(pp.51-64). San Francisco : Jossey-Bass.
- Kim, A. Y. (2011).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ego-resiliency and parents · peer attachment to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4(2), 113-127.
- Kim, J. H. (2002). The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to high-risk newborn and normal newbo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S. (2007). *AMO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Hannarae.
- Kim, K. W., Cho, Y. J., & Hong, G.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sychological growth and social competence : empathy as a mediating variabl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2(3), 1-13.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 Koestner, R., Franz, C., & Weinberger, J. (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709-717.
- Krevans, J. & Gibbs, J. C. (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6), 3263-3277.
- Kwak, E. Y. (2011).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 The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al 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Y. H. (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Effects of emotionality,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maternal behaviors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amb, M. E.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1), 167-81.
- Lamb, M. E., & Tamis-LeMonda, C. S. (2004). The role of the father : An introduction.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 Wiley.
- Lee, H. J. (2011).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ersonality and maternal involvement behavior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K. (2003).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soci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Y., & Kwak, K. J. (2010). The predictor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at age 5 : A longitudinal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85-102.
- Lee, S. H., Doh, H. S., Choi, M. K., & Ku, S. K. (2010). Exploring pathways from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and stress level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3), 255-272.
- Lee, S. H., Kim, D. M., & Seo, Y. S. (2006). The effects of counselor' attachment styles and counseling experiences on empathic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303-317.
- Lee, S. H., & Kim, S. R. (1996). *Child-parent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87-100.
- Lee, H. Y., & Choi, T. J. (2007). Rol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of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23-41.
- Lim, J. H.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erceived peer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66-106.
- Marrisa, L. D., Russell, S. I., & Melissa, G. B. (2007). Attachment to mothers and fathers during middle childhood : Associations with Child Gender, Grade, and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7(1), 84-101.
- Marsh, H. W., & Hau, K. T.(1996). Assessing goodness of fit : Is parsimony always desirable?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4(4), 364-390.
- Mayer, J. D., & Salov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 A five-factor theory perspective (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34.
- Mo, J. E. (2011).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and peer, mother's attachment and student's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Moon, Y. S. (2004).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by type on children's empathy, perspective-taking &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115-143.
- Mussen, P., & Eisen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Oxford, England : W. H. Freeman. ix 212 pp.
- Ok, J.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nfile, T. M., & Laible, D. J. (2012).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8(1), 1-21.
- Park, J. R. (2001). The Effect of empathy training programs on decrease of problematic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Korea.
- Park, J. S., & Kim, B.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 representations and empathetic abilities in prosoci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School Subjects Dankook University*, 5, 43-64.
- Park, S. H. (199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 Moonumsa.
- Park, Y. R., & Choi, H. R.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child's self-esteem, attachment and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3), 741.
- Ro, S. Y. (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orea.
- Shanahan, L., McHale, S. M., Osgood, D. W., & Crouter, A. C. (2007). Conflict frequency with mothers and fathers from middle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 Within and between-families comparis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539-550.
- Shin, J. Y. (2002).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ther/mother attach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Eds.).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16*, 41-81.
- Strauss, C. (2004). Is empathy gendered and, if so, why? An approach from feminist psychological anthropology. *Ethos, 32*(4), 432-457.
- Suess, G., Grossmann, K. E., & Sroufe, L. A. (1992).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on quality of adaptation in preschool : From dyadic to individual organization of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1), 43-65.
- Van der Mark, I. L.,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02). Development of empathy in girls during the second year of life :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ttachment, and temperament. *Social Development, 11*(4), 431-468.
- Verschueren, K., & Marcoen, A. (2002). Perceptions of self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6), 501-522.
- Wang, H. O., & Kim,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ttachment stabili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1*(2), 77-88.
- Waters, E., Wippman, J., & Sour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3), 79-97.
- Walker, S., Berthelesen, D., & Irving, K. (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 Woo, S. K. (2007). The effects of gender,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s and self-control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427-450.
- You, H. S.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of children's attachment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0*(2), 19-31.
- Yoon, J. H.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attachmen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90) The origins of empathic concern. *Motivation & Emotion, 14*(2), 107-130.
- Zhou, Q., Eisenberg, N., Losoya, S. H., Fabes, R. A., Reiser, M., Guthrie, I. K. Murphy, B. C.,

Cumberland, A. J., & Shepard, S. A. (2002).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 A longi-  
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3),  
893-915.

---

2013년 2월 28일 투고, 2013년 5월 30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